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 일 예 배 2025년 12월 28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주 은혜를 받으려 / 찬송가 39(신) 39(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예부터 도움 되시고 / 찬송가 71(신) 438(구)

기도 / 최상천 장로

성경 봉독 /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성장의 흔적 / 박화신 목사

찬송 / 지금까지 지내온 것 / 찬송가 301(신) 460(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기쁘다 구주 오셨네 / 찬송가 115(신) 115(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올 한 해 교회 표어였던 디모데전서 4장 15-16절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려고 애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정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2. 돌아보면 조금씩이라도 성장의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려 한 마음,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건넨 격려, 예배를 향한 마음의 방향. 눈에 확 드러나지 않아도, 그 작은 변화가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딛은 작은 한 걸음을 기억하십니다.
3. 이제 우리는 또 한 해를 준비합니다. 큰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순종을 선택하고, 내일 또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진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 지난 주일 설교 성탄, 가장 급진적인 사건 빌립보서 2장 5-12절

지난 주 우리는 성탄을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으나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드러난 낮아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선언하는 데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주신 은혜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흉내 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 상처와 눈물, 유혹과 고통까지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멀리서 이해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며,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향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은혜에서 시작된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먼저 결단을 요구하기보다 감격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낮아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에 밀려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도 낮아짐과 섬김의 길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탄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해 남은 시간 속에서도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 생 명 생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라는 표어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말씀과 함께 열심히 달린만큼 여러분 모두의 성숙한 자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오늘 주일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5. 12월 31일 수요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7시에 모여 친교한 후에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롭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 다음 주일 1월 4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1월 예배 위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조은영(4)	박래석(11)	한정임(18)	한규철(25)

###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는 요즘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 섬김과 배움의 자리에  
내 정신과 열망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몸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지쳐 있지는 않은지, 방향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말씀보다 여론을, 성실보다 즉각적 결과를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갱신은 소란스럽지 않게 시작됩니다.  
작은 정리, 작은 결심, 작은 복귀.  
다시 마음을 모으는 단순한 행동 하나.  
오늘 그 작은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몸에 배어갑니다.